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채지연
제 목	꿈은 나에게 사치인 줄 알았다.		
<p>19살 수능을 망쳤다. 남들이 월드컵 응원을 할 때 나는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에 귀를 닫고 공부만 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예능도 뒤로 한 채 매일 늦게까지 학교 집 학원을 오가며 공부만 했다. 12년을 공부만 했다.</p> <p>친구들과의 추억도 없고 공부밖에 몰랐다. 하지만 나의 노력은 한번의 심판대에서 보기 좋게 패배를 맛보았다. 실 새 없이 뛰어오던 나의 발이 우뚝 멈춰 섰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 억지로 성적에 맞는 대학교, 학과를 찾아 원서를 넣었다.</p> <p>반짝반짝 빛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의 20살은 빛 바랜 회색 빛으로 변해버렸다. 결국에 1년을 다니고 자퇴서를 냈다.</p> <p>꿈이 없었다. 하고 싶은 게 없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 고민을 해본 적조차 없었다. 아무런 의욕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살았다. 다시 공부를 하겠다 라는 시도를 하기에는 겁이 났다. 뒷 바라지 해 줄 부모님은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나 역시도 당장 내야할 집세와 공과금, 핸드폰 요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멈출 수가 없었다.</p> <p>새로운 꿈을 꾸기엔 비용이 들었다.</p> <p>그래서 꿈을 꿀 엄두가 나지 않았다.</p> <p>하루하루 돈을 벌며 내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친구가 미술관 티켓을 손에 쥐어 주었다.</p> <p>“너의 답답한 삶의 숨통이 트였음 좋겠다”</p> <p>일주일의 고작 하루를 쉬지 못하고 전시회를 가야 한다는 것이 조금 고민스러웠다.</p> <p>그래도 공짜 티켓이니 싶어.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 가보았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전이었다. 전쟁과 기아 많은 사진들이 보였다. 마지막에 초록 눈을 가진 소녀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p> <p>어린 소녀가 어느덧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는 사진을 보며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진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멍하니 내가 사는 이 삶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p>			

10평 남짓한 이 원룸에 갇혀서 매일 10시간씩 일하며 퉁퉁 다리를 주무르며 지쳐 잠드는 이 삶. 매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삶이 맞는 것일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나의 진정한 꿈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했는지 생각해보았다. 어릴 적부터 형태 없이 꾸었던 꿈 하나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바로 '디자인' 이었다.

나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다. 또한 미술 실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도 다녀야 했다. 이러한 나의 상황은 일반 대학교를 다니기가 힘들었다. 학점은행제도 찾아보고 직업학교도 찾아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사이버대학교를 찾게 되었다. 일반 학교처럼 학위 취득도 가능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다. 제일 좋은 점은 내가 일을 하면서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고졸 후 학습 병행제로 하게 되면 다양한 장학금이 지원되어서 경제적 부담감이 적었다. 또한 1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편입으로 준비를 하면 부담감이 더 덜게 되었다.

나의 상황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었다. 2학년 수업을 들었다. 내 성적에 겨우 맞춰 적성에 맞지 않는 수업이 아닌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디자인 수업이었다. 흥미진진한 다양한 수업이 나왔고, 전공과 별개로 관심을 가지던 다양한 교양 수업까지 듣다 보니 어렵פות이 광범위하던 '디자인' 이란 꿈에서 '일러스트레이터' 라는 꿈이 생겨났다.

나는 작가 '손따미'가 되었다.

손에 땀이 많아 바다를 담고 다니는 작가 손따미 라는 필명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떻게 시작할지도 몰라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포토샵 일러스트도 다루기가 영성하여 그냥 A4용지에 그린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렸다. 어느 순간 툴을 다루는 것을 배우고 그 그림을 SNS에 올려 사람들의 공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콜라보와 제안을 받으며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낮에는 웹 디자이너라는 직업으로 생활을 했다. 퇴근하면 학교수업을 들었다. 배우면 배울 수록 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양한 활동에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작은 독립출판 서적인 '내 손의 작은 바다' 라는 책을 내게 되었다.

인디디자인에서 글씨조차 쓰지 못하던 내가 어느새 책 한권을 똑딱 만들어냈다.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하였고 운이 좋아 웹드라마의 캐릭터 감독을 맡아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게 되었다. 이때도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서 학교 수업에서 비슷한 과목이

있는지 살펴보아 수강을 해서 꽤나 도움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를 때 학교 수업들은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 숨통이 트였다.

단순히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만 하며 근근히 삶을 살아가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며 강의를 하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하는 작가가 되었다. 예전에는 얼른 졸업장을 따서 '고졸'이라는 이력서에서 '대졸'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싶었다. 지금은 졸업이라는 것이 아쉽게 되었다. 졸업을 하게 되면 다음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는게 너무 아쉬웠다.

꿈을 꾸지 못하는 나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자격을 준 학교에게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꿈은 사치 와도 같았다.

돈이 있어야 꿈을 꿀 수 있는 줄 알았다. 매일 지쳐 잠들 때,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았다. 매일 같은 하루일 뿐이니 내일이 온들 달라지지 않을 거라 속상할 뿐 이었다. 하지만 한 해가 끝나면 빼 곡이 적힌 달력들을 볼 때 마다 나의 한 해가 이렇게 고단했구나, 뿌듯했구나 기쁘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